

‘탄소 없는 섬, 제주’ 기반 다지기 본격화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본격 나선다. 최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는 동북풍력발전단지 준공 및 확장,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도민 에너지복지 사업, 신규 풍력사업 타당성 조사, 기존 풍력발전단지 증설사업 등을 위해 2014년도 투자액 356억 원 대비 64.4% 많은 58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맞춰 경상적경비의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제주에너지공사는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확장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한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 공사는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80억 원이 투자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경관훼손 저감 및 모범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로 육성, 6만6,659M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간 1만8,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며, 전력판매 수익 등도 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등에 586억 편성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확장 사업 등 집중 투자

아울러 입지조건이 우수한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에 4MW 규모의 확장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 등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신규 풍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도 나선다. 우선 제주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해상풍력사업 투자 타당성 검증을 위해 2억 원을 투자한다. 나아가 육상풍력사업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도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1,000만 원과 풍력발전사업에 도민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조사에도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행원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추진으로 이용률을 제고시켜 탄탄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풍력발전기 출력성능, 전력품질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총 586억 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획득을 완료함으로써 신규 풍력발전단지 성능평가 수행 및 관련 연구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불우이웃 지원과 긴급재난에 대비한 지원 등에 1억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내 저소득층 2,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사업에 각 5억 원을 지원 도민 복지를 적극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 없는 섬’ 실현을 목표로 2019년까지 1GW, 2030년까지 1GW 등 총 2GW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방침으로 1단계로 1차(2011~2016년) 350MW, 2차(2016~2019년) 650MW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어 2단계에서는 2030년까지 1GW의 해상풍력을 추가 건설해 578MWh의 전력을 생산해 넘으로써, 2030년 이후 전체 제주의 전력수요량 529MWh를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